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

- 1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 2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 3 가까이 다가가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 4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 5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 6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 7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 재판석에 앉은 빌라도

- 8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 9 관저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 10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11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네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 12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 13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판(히브리 말로는 가바다)이라 불리는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3 목상하기

진리에 있어서 타협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무엇이 더 유익할지 이리 재고 저리 재며 계산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11절) 그분이 예사롭지 않은 분임을 직감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군중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까 두렵기도 했습니다(12절). 결국 그는 두가지 두려움 사이에서 군중을 선택합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한번의 선택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물로 그의 이름이 불리고 있습니다.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던 빌라도처럼, 우리 앞에도 진리와 비진리의 갈림길이 늘 있습니다. 이 길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그 선택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4 적용하기

나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나도 빌라도처럼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 사이에서, 성경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갈등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주로 어떤 선택을 해왔고 무엇을 추구해왔는지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타협하게 되는 일에는 무엇이 있나요?
- ②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돌이켜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현실에 타협하며 죄에 굴복하지 말고,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1 2 3

9 관저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0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1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12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13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판(히브리 말로는 가바다)이라 불리는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 궁굼 사전

*관저: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살도록 만든 집

*권한: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나 힘이 미치는 범위

*충신: 나라와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신하

*반역: 왕이나 나라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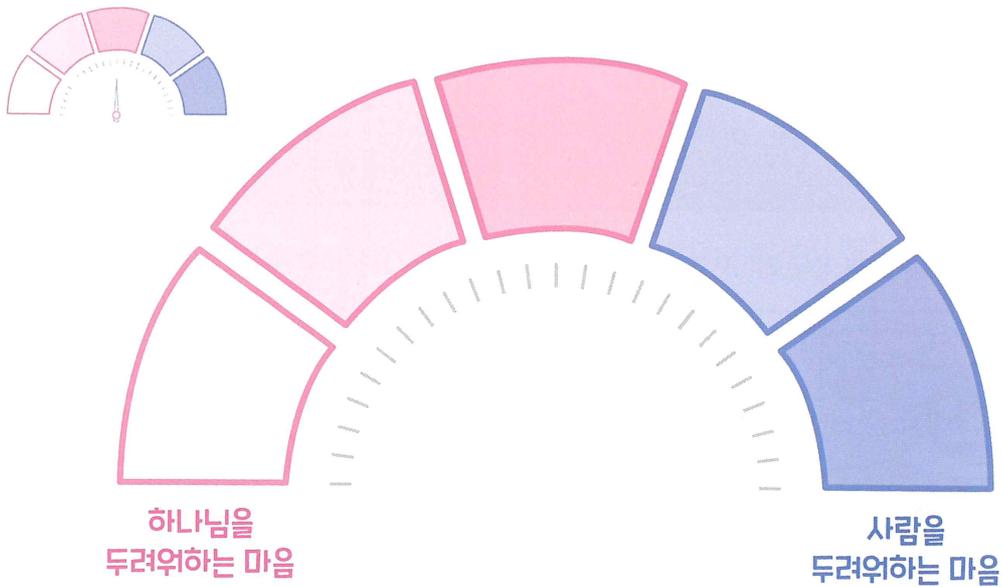
• 말씀 씨앗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줄 힘도, 십자가에 못 박을 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어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지만 사람들이 반대하며 소리쳤어요.

3 말씀새싹 -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나요?(10절) 예수님은 그 권한을 어디에서 주셨다고 하셨나요?(11절)



4 말씀 열매 - 나는 하나님과 사람 중 누구를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나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아래 계기판에 바늘로 표시해 보세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5 기도하기

하나님,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따르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